

고은 불교 대하소설

달라지는 세상

두 사람은 객주 안의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위탁판매의 물화나 아무렇게나 내 동덩이처럼 깎은 노적(露積)의 곡식 삼들을 보고 새삼 어리둥절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정작 객주 안의 넓은 곳에는 내거간 외거간과 매주(賣主)들이 서로 눈치를 재는 긴장에 휩싸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듯이 웅성거리고 그 활발한 분위기는 그들로서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인담에게는 그들이 제물포로 오기 전의 첫걸음에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남녀가 만나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나 인연다거나 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도 이런 곳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바야흐로 임진왜란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세상이 와해되어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어떤 모색이기도 하였다.

있는 그대로 살 수 없었다. 무엇인가 새로 있어야 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있는 세상이란 언제나 활보고 굽주리는 가혹한 빈궁의 세상이었다. 죽은 자식의 유품까지 나라에 바치는 세(稅)로 수탈당해야 했던 세상이었다. 그것이 나라였고 그것이 세상이었다.

더우기 이 시대는 나라의 정치도 오랜 당쟁의 분열로 서로 입는 옷이 달라질 만큼 첨예한 복합대립으로 치닫고 있었

중이었다.

이런 곳에 막연히 당도한 인담들의 마음은 무욕도 수행의 그것을 먹은 것 다 게워놓은 것처럼 퐁퐁 뒹집어 놓을 정도였다.

수행이 본래의 상품에 다가가는 추상이라면 그 추상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세속 현실은 당장 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존이 달려있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본래 상품 따위가 무슨 낯도깨비의 그림자나 하는 엄혹한 현실만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상업의 이득에만 눈이 먼 곳에도 어김없이 흥역이나 다른 열병이 번져서 죽어나가는 송장 또한 줄을 이어갔다. 상여도 없이 메고가는 앓은 송관 목관을 두번이나 만났다. 그런 세속에 발을 들



15

서 왔습니다"

"보아하니 야산의 화상(和尚)이신데... 전포나루 선장이라면 그 수행장이 배반족이지 아마"

"네 배선장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소승이 그 선장에게 돈 2백냥을 1년 안에 갚기로 하였는데 요즘이 1년을 다 보낸 때입니다"

인담으로서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뱃쟁이 생겨서 그 사연을 말하였다.

주인은 우녀 쪽을 잠깐 살펴보았다. 여승이었다.

"두 사람은 한 짝인가 본데?"

"....."

인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설마하니 무슨 묘책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녀의 신령스러움에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디에도 때가 되어 저녁연기가 나는 집이 드물었다. 흥역이나 다른 열병이 번져서 죽어나가는 송장 또한 줄을 이었다.

다. 그래서 한양 반가(班家)에는 사람이 적(寂)이었다. 노론과 소론이 갈라졌다.

노론의 우두머리 송시열(宋時烈)이 한 그릇의 사약으로 죽지 않아서 두번째 사약을 먹고 나서야 쓰러졌다. 장희빈의 세도는 임금을 능가하였다. 그러다가 그녀도 끝내 무대에서 철저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다.

노론인가 했더니 소론의 시대였고 소론인가 하면 다시 노론이기도 하였다.

인담과 우녀가 걸어온 기호지방의 서쪽 들녘에도 초적의 무리가 고개마다 비록 부달마가 아니더라도 소금 한 말 정도까지 터는 형편이었다. 드넓은 들녘이라 할지언정 그 어디에도 때가 되어 저녁연기가 나는 집이 드물 지경이었다.

이와함께 아무리 구석진 바다 가까운 한촌이라 한들 그런 곳을 떠도는 나그네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양반의 평시조(平時調)에 대해서 낯설음은 사설시조가 생겨서 중서인(中書人)들의 대담한 입담이 마음껏 돌아나기도 하는 것이었다.

어제 그리 집을 뛰쳐나와 떠돌지 않으면 안되는 목객이나 풍월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불 개울에 송사리처럼 떼지어 다니는 일이 흔하게 되었는가. 대처럼 제물포에는 더욱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림으로써 실속이 있는 사람과 달리 허기(虛氣)를 면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는

여농은 이상 두 사람은 돌아갈 힘조차 다 빠져 나간 상태였다.

서기가 대기시켜 놓은 밤은 정갈한 마루방이었다. 웬만한 차림으로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저 안에서 "안으로 불러 들일까요?"라는 서기의 공손한 말이 들렸다. 그러자 주인의 근엄한 소리가 있었다. "아니네. 내가 나가보겠네... 이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말게나. 해주(海州) 화주(貨主) 한 녀석이 앉았다 간 자취가 있었대"

"그 자가 무엇을 총쳐왔습니까?"

"뭐 작은 것이야. 청나라 옥반(玉盤) 한 벌"

"아름싸"

"괜찮대네. 그거짓 것이야 어찌됐는가. 앞으로 조심하게나"

"네, 네"

그들이 대기실로 나왔다. 주인은 어느 사대부의 안용(安容)이 그려졌느냐는 듯이 실로 부귀를 타고난 푸짐한 얼굴이었다. 다만 말소리가 높은 음정으로 내시(內侍)를 닮아있었다.

"어떤 일일?"

"네..." 하고 인담이 숨을 내쉬어서 마음을 다잡았다.

"예성강 전포에서 이곳 제물포와 저 아래 군항포(群山)를 왕래하는 배의 선장이 여기 와서 앉으라 하는 빛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저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들이 오는 동안 두 사람의 목숨이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인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아무런 준비 없는 흥박이 저승의 심도천(三途川)을 공짜로 건너가는 것처럼 어떤 수작도 통하지 않는 제물포 객주에 냉큼 당도한 것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보는 무작정으로 끝난 셈이었다. 이제 우녀가 나섰다.

"굳이 짝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공부를 하다가 삼천대천세계의 이르는 곳마다 꽃 한 송이를 피우려는 뜻입니다"

"허허 마음이 큰 도인들이군... 그래 2백냥은 갖고 떠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이 없습니다"

"없다?"

우녀는 그녀의 두 손바닥을 꼭 껴보았다.

"없군. 그럼 아리따운 도인의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인가?"

"몸보다 마음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몸이야 썩은 나무토막이고 이거건 바위덩어리일 뿐이지요"

"마음이러? 어디 그 마음 한번 내보이구려"

그때 우녀가 주인 앞에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절을 하였다.

"이제야 참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제 스승



그림 · 최규일

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 잘난 주인의 마음에 물뭍이 같은 것이 이는 것이었다.

"아이구 내가 돈 2백냥을 받아 놓으려다가 내 마음까지 내주게 될 지경이 되었는데 그려"

그때 우녀가 한 마디 받았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얼음과 물이 서로 다치지 않습니다. ... 바로 이 뜻을 스승으로부터 오늘 얻었습니다"

"나에게서?"

주인의 눈이 커졌다. 뜻밖의 말에 놀란 것이 틀림없었다.

"말 한 마디가 천냥(千兩)이니 2백냥을 감하고 8백냥을 내주게"

라고 서기한테 딱 부러지게 말하는 주인 앞에서 인담이 놀랐다.

그러나 우녀는 정중히 함장으로 예를 갖춘 뒤 "다시 찾아올 날이 있겠습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다. 뜻밖의 말에 놀란 것이 틀림없었다. "말 한 마디가 천냥이니 2백냥을 감하고 8백냥을 내주게"

라고 말하였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 그려"

주인이 깔깔깔 웃어댔다.

두 사람은 서기가 손짓하는대로 바깥채로 나왔다. 장부(賬簿) 방에서 8백냥의 전대(錢帶)를 인담의 바깥 속에 넣어 주는 것이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서기가 날렵하게 경어를 썼다.

두 사람은 객주의 바깥 저자에 나와

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물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헤엄친 것이 강화도 온수리 지경의 바닷가에 닿을 수 있었고 그 뒤로는 배를 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객주인에게 참고직이 일거리라도 얻으려는 딱한 처지에 몰린 것도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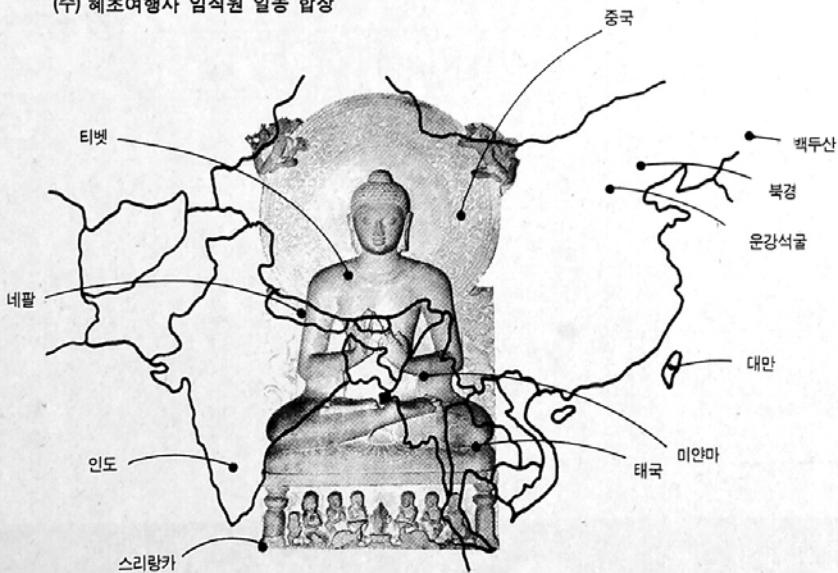
우녀는 배만득 일행을 무욕도로 데려갈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선장님! 우리와 함께 갈 데가 있습니다"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엔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헤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 3월 7일 · 동침금: 215만원

일정: 서울-델리-력나우-발람푸르-롬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엔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담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 3월 2일 · 동침금: 165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위성-롬비니-카트만두(보드닛·스 와이엠부트)-방콕(새벽사원 에메달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 3월 10일, 24일 · 동침금: 10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 3월 19일 · 동침금: 8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 3월 17일 · 동침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화롄-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복금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